

# 주문 예법



통합장례서비스  
예원추모관

## 조문(弔問)이란?

장례 절차 중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절차.

조문의 방식은 종교별로 다르지만 어떤 종교든지 죽은 이에 대한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고인이 안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같다. 조문에도 예절이 있으며, 그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꼭 장례식장 조문 예절을 알아보고 갈 것.

또한 본인이 믿는 종교와 고인의 집안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 종교 절차를 따라주는 것이 예의이며 거기서 싸움을 벌이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도 역시 예의가 어긋난다.

## 조문 방법

### 일반적인 방식(유교식)

위패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한자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다. 이 때 절대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면 안 되고, 좌우로 향을 흔들어서 끈다.
3. 향로에 향을 꽂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올린다.  
원래 여자는 절을 4번 해야 하지만, 요즘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2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교 집안일 경우, 여성에게 절을 4번 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집안의 예법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다. 또한 흥사공수법에 따라 평소 절을 할 때와 반대로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손의 위치도 요즘은 크게 신경 안 쓴다. 다리나 발에 킁스한 사람이거나 입식 빈소인 경우는 묵념한다.
4.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원칙적으로는 상주와 맞절을 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빛이나 태도로만 위로를 전하며 물러 나오는 것이 예의에 맞다.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를 보가며 짧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얼마나 슬프십니까." / "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가 무난하다. 단, '호상'(好喪) 같은 단어는 상주가 없는 자리에서 조문객들끼리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하며, 상주와의 대화에서는 절대 쓰지 않아야 한다. 상주와의 인사와 대화 중에 미소를 짓거나 웃음 소리를 내는 것도 큰 실례가 된다. 다리나 발에 킁스를 했거나 입식 빈소라면 절을 안 한다.

## 불교식

불교의 경우 유교와 동일하다. 위패에는 불교 마크와 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다.
3. 향로에 향을 꽂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올린다.
4.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위로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호상' 같은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식과 예의와 예법은 동일한다. 향을 피운 뒤 절대 불어서 끄지 않는 것과, 흥사공수법 등.

## 한국 천주교식

천주교의 경우 천주교 예법을 따르지만, 한국 고유의 장례 문화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절차가 조금 긴 편이다. 위패에는 검정색 십자고상 마크와 고인의 이름과 세례명, 그리고 양 옆에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주소서'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빈소에 따라 국화꽃이 있을 수도 있고, 성수가 있을 수도 있다. 국화꽃이 있을 경우 국화꽃을 들고 꽃봉우리가 고인 영정 쪽을 향하게 놓은 뒤 뒤로 물러서 15도 각도로 묵념을 하면 되고, 성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수가 묻혀있는 봉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흔드는데, 먼저 성수를 잡고 "주님!" 하고 외친 다음 영정 왼쪽에 한번 뿌리며 '김 바오로(세례명과 고인의 성)에게', 중간에 뿌리며 '영원한', 오른쪽에 뿌리며 '안식을 주소서' 라고 말하면 된다. 그 다음 봉을 든 상태로 합장을 한 후 아멘을 해주면 된다. 여러명이 왔을 때는 대표자 1명이 뿌리고, 아멘은 다 같이 한다.
3.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다. 이 때 역시 불은 불어서 끄지 않고, 좌우로 흔들어서 끈다.
4. 향로에 향을 꽂고 뒤로 물러서서, 정중한 마음으로 절을 2번 한다. 이 때도 역시 흥사공수법이 적용된다.
5.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연도' 라는 예식이 있다. 연도는 시편 여러개와 성인 호칭 기도, 주님의 기도 등 총 11가지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전부 하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원래는 그냥 기도문 중 하나였으나 2002년 10월 18일 주교회의를 통해 정식 예식으로 격상됐다. 조문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고인이 다니던 성당 교우들이 나누어주는 기도문을 보면서 연도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

## 성공회식

성공회 역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인정하며 조문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천주교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위패에는 빨간색 십자고상[2] 마크와 고인의 이름, 세례명과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주소서' 라는 내용의 글귀가 양 옆에 적혀 있다.

1.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2. 향을 피우고 좌우로 흔들어 끈 다음 향로에 꽂는다.
3. 뒤로 물러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2번 한다. 이 때도 흥사공수법이 적용된다.
4.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주여, 별세한 이를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주소서. 아멘' 이라는 기도를 바친다.[3]
5. 상주를 향하여 한번 절을 한 뒤, 간단한 위로를 한다.

성공회에는 천주교와 달리 연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 적힌 순서대로 조문을 마쳤으면 그냥 나오면 된다.

## 개신교식

위패에는 십자가에 '00 (고인명) 이라고 적는다. 향 역시 고인의 혼을 불러드리고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식 장례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타 종교에 비해 조문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다.

1. 분향소에 들어가 상주와 목례를 한다.
2. 빈소 앞에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꽃봉우리가 고인 영정을 향하도록 한 뒤 영정 앞에 놓는다.
3. 뒤로 물러서 1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한다. 이 때 천주교/성공회 신자인 경우에는 십자성호를 그어도 상관 없다.
4. 상주와 목례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타 종교를 믿는 조문자들에게도 이 예법을 따르게 하고 있고, 반대로 다른 종교를 믿었던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서도 절을 하지 말고 기도로 대체하라고 가르친다.